

교육도시 헌장



국제교육도시연합

교육도시헌장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www.edcities.org

저작권:IAEC

디자인 및 기획
www.wayava.net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국제교육도시연합



Ajuntament
de Barcelona

1990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교육도시연합 총회에 참석한 각 도시 대표들은 도시의 교육적 원동력을 골자로 하는 기본원칙을 1차 헌장에 명시했으며, 이는 도시 주민들의 자기개발을 위함이었다. 교육도시헌장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적 도전과 필요에 부응하고자 제3차 세계총회(1994년 볼로냐)와 제8차 세계총회(2004년 제노아), 그리고 2020년에 수정되었다.

본 헌장은 세계인권선언(194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선언(1990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베이징, 1995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년),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헌장(2005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6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2015년),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15년)에 입각한다.

서문

오늘날의 도시는 크기에 상관없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는 “잘못된 교육”과 관습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도시는 총체적 교육을 위한 주요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복합적인 시스템들이며, 교육 및 사회적 변화의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수의 다면적인 평생교육 기관들이다.

교육도시에서 교육은 학교의 벽을 넘어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이로 인해 모든 행정주체가 교육을 제공하고, 도시를 삶과 다양성이 존중 받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시민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도시에서 교육은 학교의 벽을 넘어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교육도시는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함께 공존하고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며,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자립적이며 서로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양성하는 영구적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시민들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점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삶을 좌우하는 현재의 상황에 필요한 해법 모색에 있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과 기량을 믿는다.

교육도시는 자국에 부합한 고유의 개성을 가진다. 따라서 교육도시의 정체성은 소속된 지역과 상호의존적이다. 또한 주변 도시와 지방의 농어촌지역, 타국의 도시 등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것도 도시의 특성이다. 교육도시의 지속적인 목표는 학습하고, 혁신하며, 공유함으로써 도시 거주자들의 삶을 더 풍성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게 하는 것이다.

교육도시는 모든 연령의 도시 주민들이 항시 삶의 모든 측면에서 교육적 필요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통적 기능(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기능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은 유년기에 시작되지만 결코 끝나는 법이 없으며, 직업교육 및 전문교육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교육은 자유와 책임감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와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생각을 일깨우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비판적 사고력과 자아성찰능력을 제고하며, 정책의 설계 및 개발에 함께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의 파괴나 사람들 간의 불평등을 내포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상상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민 의식을 고양시킨다.

이러한 교육도시의 기능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며, 이 근거들은 효율적인 사회, 문화, 교육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21세기에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개인이 고유성, 창의성,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진 잠재력을 더 잘 성찰하고 표현하며 주장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개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둘째, 대화와 적극적 경청이 가능하도록 모든 사람이 존중 받고 존중할 수 있는 완전한 평등의 조건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셋째, 각 도시 별로 진정으로 포용적인 지식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평등과 공정의 조건 속에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과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이다.

“ 평등과 공정의 조건 속에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한 공동체 의식과 기술을
배우고 개발하는 것이다. ”

교육도시들은 정규 교육기관들, (교육적 의도가 있지만 형식적 교육체계 밖에 있는) 비정규 교육 사업들, (교육적 의도가 없거나 의도되지 않은) 비정규 활동을 바탕으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 경험을 교류한다. 협력정신의 가치 하에, 교육도시들은 연구 및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업의 형태로 상호 지원한다.

도시 내 아동, 청소년 및 청년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중심인물로서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들의 시민권과 참정권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잘 알려진 대변 및 참여의 도구들을 통해 성인이나 노인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다른 세대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류는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시대의 진정한 변화, 심지어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겪고 있다. 사람들은 오늘날의 정치, 사회, 경제 및 생태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문화”를 직면하고, 지역 차원에서 복잡한 세계문제에 참여하며, 경제 및 정치적 세력의 중심에 의해 통제되는 정보의 홍수에 맞서 독립적 및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수의 국가에서 자국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맞는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지 못 했고, 오랜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들의 체제에 대한 수준에 만족하지 않은 상태로 세계시민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한편,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강대국들 간의 상대적 균형은 새로운 초국가적 긴장으로 대체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경제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전염병의 위험, 생물 다양성의 상실 등으로 인한 기본 천연자원의 감소로 나타나는 경제-사회적 위기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는 과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사회 및 경제적 조직의 광범위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도시의 소비 방식은 세계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 중 하나다. 한편 그 크기와 인구수가 각기 다르므로 도시들은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 기후변화, 식량 및 에너지 의존도, 과소비 및 오염의 영향으로 도시들은 거주하는 사람들과 기타 생물들에게 살기 좋고 건강한 삶의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 중대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있어 상당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 (...) 모든 국가의 도시들은 반드시 그들의 지역적 관점을 완전한 민주시민의식을 위한 실험 및 통합의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 ”

이러한 새로운 상황은 대다수 국가의 시민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기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세계평화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며, 삶을 힘들게 하는 포퓰리즘적 전환과 같은 필연적 위험을 야기한다. 새로이 등장하는 불안 및 공포 앞에서 단순한 슬로건 및 비이성적인 희생양 찾기가 인구 일부를 유혹하고,

이것은 곧 급진화와 폭력적 대립의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국가의 도시들은 반드시 그들의 지역적 관점을 완전한 민주시민의식을 위한 실험 및 통합의 플랫폼으로, 윤리 및 시민가치에 대한 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삶의 원동력으로, 민주주의 정부의 형태가 다양함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잘 설계된 대의권 및 참정권의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장려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 가치와 인권 기반 교육은 의미를 부여하고, 용기를 부여하고, 민주적 로드맵을 구축하며,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가치와 인권 기반 교육은 의미를 부여하고, 용기를 부여하고, 민주적 로드맵을 구축하며,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

다양성은 삶에 내재돼 있을 뿐 아니라 현대 도시들에도 분명히 내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다양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도시의 도전과제 중 하나는 도시를 구성하는 공동체들의 기여도와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이 인정받는다 고 느낄 권리를 고려하여, 정체성과 다양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종차별과 모든 유형의 배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 오늘날의 도전과제는 공익 실현을 해치지 않으면서 특이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교육도시는 포용성에 대한 목표를 수용하고, 각각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도시 전체에 공유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이들을 초대해야 한다.

“ 교육도시는 포용성에 대한 목표를 수용하고, 각각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도시 전체에 공유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이들을 초대해야 한다. ”

또한 교육도시는 성불평등을 유발하는 사회구조를 탈바꿈시키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폭력이나 사회적 배제의 여성화와 같은 결과에 맞서면서 공동교육도시 수립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안정 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불확실성의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는 흔히 타인에 대한 거부와 상호불신으로 나타난다. 교육도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며 단순하고 일방적인 해법을 취하지 않는다. 교육도시는 오히려 이런 모순을 인정하고, 불확실성과 함께 살아가는 이상적 방법으로서 지식, 대화 및 참여의 과정을 제안한다. 정치, 언론, 소셜 네트워크에서 '왜곡된 진실'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오명을 씌우는 고정관념에 대해 시민들이 방관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언어 교육과 비판적 사고 함양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상호의존적이다. 돌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인생 전반에 걸쳐서, 특히 유아기, 노년기, 중증의 질병을 앓는 시기와 같은 순간들과 장애인들의 경우 돌봄을 받아야만 하고, 여기에 우리의 생존과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이 달려있다. 교육도시는 돌봄을 인정하고 발전시키고 장려해야 하며, 사회가 이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표명된 모든 도전과제와 필요성에 대응하여, 교육도시에 대한 권리는 교육 받을 권리의 연장선으로써 주장되어야 한다. 교육도시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의 평등, 사회 및 세계적 정의, 지역균형,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인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의 원칙들에 대한 핵심적 담보여야 한다.

“ 교육도시에 대한 권리는 교육 받을 권리의 연장선으로써 주장되어야 한다. ”

이는 교육도시의 원칙을 정치적 영역에 반영함으로써, 도시가 지닌 모든 교육적 잠재력을 개발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강조한다.

원칙

교육도시에 대한 권리

- 1 통합적 평생교육
- 2 광범위한 교육정책
- 3 다양성과 차별금지
- 4 문화에 대한 접근
- 5 세대 간 대화

도시 공약

- 6 지역에 대한 지식
- 7 정보에 대한 접근
- 8 정치와 시민참여
- 9 모니터링과 지속적 개선
- 10 도시의 정체성
- 11 살기 좋은 공공 공간
- 12 시 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능성
- 13 지속가능성

도시 주민을 위한 헌신

- 14 보건 증진
- 15 교육담당자 양성
- 16 포용적 진로 상담 및 취업 지도
- 17 사회적 포용 및 통합
- 18 불평등에 맞서는 공동책임
- 19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봉사 증진
- 20 민주시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 교육

교육도시에 대한 권리

1

통합적 평생교육

우리는 교육도시에 대한 권리를 교육에 대한 기본권의 연장선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도시의 모든 주민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교육, 여가활동,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자원 및 기회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교육都市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단체들과 그들 각각의 요구들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의 정책입안자와 공직자들은 평등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시의회와 행정당국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으며 시민들 또한 개인으로써, 그리고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참여해야 한다.

2

광범위한 교육정책

도시들은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에게 부합하는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권한의 범위를 막론하고 시당국은 모든 형태의 정규, 비정규 및 비공식 교육,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표현, 정보의 출처 및 도시와 이웃 도시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접근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통합적이며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시당국의 교육정책은 항상 사회정의, 평등, 민주주의적 공동체 정신, 지속가능성, 삶의 질 및 주민들의 개인적 성장의 원칙들에 대한 폭넓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다양성과 차별금지



도시는 사회적 이해, 국제협력,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들과 다른 인종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세계평화 등을 위한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장려한다. 이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는 교육이다. 교육도시는 표현과 신앙의 자유, 문화적 다양성, 평등과 관련된 대화와 적극적 경청을 증진한다. 또한 그 발생지에 상관없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들을 지원한다. 이는 사회계급, 출생지, 인종,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장애 및 그 외 모든 유형의 다양성에 대해 수반하는 불평등을 시정하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합하고 화합을 촉진하는 방법으로서 도시 내 존재하는 언어들에 대한 인정, 지식, 학습 및 사용을 장려한다.

4

문화에 대한 접근



교육도시는 문화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포용과 소속감 및 조화로운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써 시민들, 특히 취약계층이 도시의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문화적 자산의 향유와 더불어, 문화적 참여는 모든 시민들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문화와 문화적 자산들 및 사업들 관리에 대한 시민 참여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도시는 개인, 사회, 문화 및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 전위예술주의든, 대중문화이든 상관없이 문화적 사업들을 장려 및 지원하여, 예술교육, 창의성 그리고 혁신을 자극해야 한다.

5

세대 간 대화



교육도시는 세대 간 친밀도와 협력을 촉진하고, 단순히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한 방식으로 연령차별주의에 맞서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세대 간 특성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연령대의 개별적 기술, 경험 및 가치를 활용하는, 시민 중심의 사업과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도시 공약

6

지역에 대한 지식

교육도시는 지식기반의 정치적 결정을 통해, 보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지역의 상황 및 생활조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보유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프로젝트 및 정책을 기획할 때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공식적 및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열려있는 영구적 소통 창구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정보에 대한 접근

도시는 충분하며 이해 가능한 정보 제공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모든 가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교육도시는 오늘날 접근 가능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선택, 이해 및 처리하는 활동의 가치를 고려하여, 모두가 접근 가능한 자원을 제공하고 도시 내 모든 장소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도시는 제공되는 기회를 활용하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연령대와 사회단체들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 특히 아동과 청년의 과학 및 연구 역량과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또한 교육도시는 맞춤형 멘토링이 필요한 집단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들에게 전문성 있는 정보, 안내 및 멘토링을 제공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통제 수단의 발전에 대응하여, 도시는 개인정보 보호, 친밀함, 자율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8

정치와 시민참여

교육도시는 공공행정당국과 시민들이 설계와 진행에 있어 협력하는 정치적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업은 교육도시의 전형적 특징이다.

또한 비판적이고 건설적이며 공동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이 지방자치제 경영과 지역사회의 삶에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의사결정 과정을 개방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사업 및 기타 자발적 참여를 고려하여, 시민 및 사회단체와 기관을 활용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유년기 이후의 교육활동 및 접근법을 개발한다. 참여형 과정이 끝날 때는 시민들이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아동, 청소년 및 청년을 성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사회 삶의 관리와 개선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오늘날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도시는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과 도구들을 제공해야 한다.

9

모니터링과 지속적 개선

도시는 시정책의 교육, 사회 및 생태학적 영향을 평가하여 지속적 개선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의 교육 프로젝트와 도시가치, 도시 내 삶의 질, 도시 행사와 캠페인 및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들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숙고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0

도시의 정체성

도시는 자신만의 복잡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체성을 발견, 보존 및 표출하는 방법을 인식해야 하는 동시에, 도시의 고유한 개성을 갖게 하는 유무형의 유산과 역사적 사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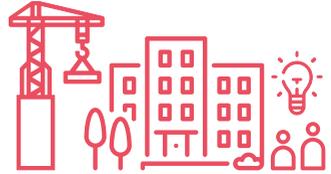


강조해야 한다. 이는 주변 환경과 세계와의 생산적 대화에 대한 초석이 된다. 도시의 관습과 그 기원에 대한 인식은 인권과 부합해야 한다. 이로써 도시는 자연과 사회 환경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매력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주민들이 느끼는 소속감과 공동 책임을 강화해준다.

11

살기 좋은 공공 공간

공공 공간의 배치는 접근성, 돌봄, 보건, 사교, 보안, 놀이, 오락 그리고 개인, 가족과 일 사이의 균형에 대한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교육도시는 도시계획과 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있어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이 최대한의 자율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는 친화적이고 존중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도시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관점을 통해 도시공간이 모든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교육도시는 자연과 어울릴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촉진해주는 야외 운동 및 놀이공간 설치를 장려해야 한다.

도시의 변화는 새로운 필요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도시의 과거와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조물이나 상징물의 연계성 간의 조화를 지켜야 한다. 도시는 공공 공간, 건물들 및 자연공간 간의 통합과 조화로운 삶을 장려하고, 언제나 빈민가 형성을 막아야 한다.

또한 도시 주민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프로젝트에 심미적 및 환경적 기준을 포함하고 공공 공간의 계획 및 설계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12

시 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능성

지방정부는 특히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및 장애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모든 주민의 개인, 사회, 도덕, 문화적 함양에 적합한 공간, 편의시설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해야 한다.



13

지속가능성

교육도시는 식량, 물, 주택, 위생, 에너지, 교통,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등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권리와 물질적 필요를 충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생명이 환경에 의존적이라는 사실과 지구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존엄성 있는 생존을 보장할 공동체 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자립, 공유 및 공정의 원칙하에 공정하고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과 소비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책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도시 주민을 위한 헌신

14

보건 증진

교육도시는 모든 사람들의 신체, 정서,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전인적이며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강화하고 건강한 환경 및 삶의 방식을 지지할 것이다.



보건 증진은 신체적 활동과 정서, 대인, 성, 영양 및 중독예방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모든 사람을 돌보는 공간으로서 도시를 구현하고, 외로움과 고립 방지에 도움이 될 활동적인 노년기와 사회적 관계를 장려해야 한다.

15

교육담당자 양성

도시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알아가기 위한 자립과 보호에 대한 요구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일반 교육자들과 부지불식간에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교육 관련인들을 위한 양성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의 경찰기관과 민간인 보호기관은 이러한 양성법에 부합하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16

포용적 진로 상담 및 취업 지도

도시는 주민들에게 사회에서 자신이 맡을 역할이 있다는 관점을 제공하고, 개인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야 하며, 시민들이 모험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도시는 성인지적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업, 직업 및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 취업 간 연결이라는 특정 영역에는 교육에 대한 계획, 노동시장의 필요, 지역사회의 필요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는 불평등, 배제, 또는 지하경제에 연루된 사람들을 위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평생직업교육과 멘토링 전략을 수립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이들의 사회 및 노동시장 진출을 가능케 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기업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사회적 포용 및 통합

17

도시는 권리 침해, 배제 및 소외의 다양한 기제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주민이든지 망명자이든지 상관없이, 국가 간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외에도 자신을 받아들인 도시를 자신의 도시로 만끽할 권리를 보유한 신규 주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이해관계, 구체적 요구사항, 지식 및 능력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도시는 각계각층의 이웃과 그 주민들 간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일한 목적으로, 사회적 낙인과 소외로부터 고통 받는 지역 내 집단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도시는 특히 성별, 성적 정체성 및 성향, 출생지와 인종, 나이, 신체적 외관 등과 연관된 폭력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을 퇴치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불평등에 맞서는 공동책임

18

불평등에 맞선 개입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으나, 인간의 권익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에 입각해야 한다. 요구사항들과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가 가진 최선의 지식을 바탕으로, 불평등에 대한 주요 개입들은 행정기관과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 간에 공동 책임과 협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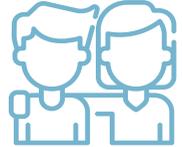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 행정당국, 시민사회, NGO, 기업, 그리고 기타 민간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19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봉사 증진

도시는 지역사회를 위한 행동을 촉진하고 사람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정보, 자료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참여 및 공동 책임의 형태로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봉사를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도시는 인권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문화, 스포츠, 연대, 지식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참여 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지역사회의 삶에 수반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계획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0

민주시민의식과 세계시민의식 교육

교육도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존중, 관용, 참여, 책임, 공적생활에 대한 관심, 공익에 대한 책무 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의식의 가치와 관습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육도시는 전 세계적 도전과제들에 의한 지역적 및 세계적 차원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지역 및 세계적으로 참여하고 전념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촉진해야 한다.

기타 원칙들과 더불어 상기 원칙들은 모든 개인이 도시, 그 주변 환경과 지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헌장은 아래에 서명한 도시들이
본 헌장에 표명된 일체의 가치와 원
칙에 헌신할 것임을 천명한다.

향후 급속한 사회발전으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모든 분야와 관련하여
본 헌장은 수정 및 확대될 수 있다.

www.edcities.org

